

■ 새전북 문학상 수상 소감

아홉수와 문학의 인연

■ 대상 김정길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수족마비와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는 나를 옆집아저씨로 불렀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밤을 지새우고 전북수필 윤철 회장과 문인들의 문학상 당선 축하전화를 받고나니 몹시 겸연쩍었다. 아내는 일흔을 코앞에 둔 나에게 아홉수와 삼재三災가 겹쳤다고 걱정했다. 올해 막바지에 어머니 병세가 위독해서 입원하셨다. 그런데 문학

상 당선소식을 접한 뒤부터 병세가 호전되고 현안들이 실타래 풀리듯 했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홉수와 어머니의 병세는 유별났다. 문학의 인연 또한 묘했다. 어머니는 1998년 앓으셨던 뇌출혈 후유증이 심했다. 2001년 아홉수 때 다시 입원하셨고, 나는 베스트셀러가 된 《전북 백대명산을 가다》를 발간했다. 2011년 아홉수 때는 어머니는 양팔 골절로 입원하셨고, 나는 행촌수필문학회장을 역임한 뒤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을 맡았다. 2021년 아홉수 때는 어머니는 고열로 입원하셨고, 나는 전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생각하

지 않았던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의 아홉수마다 설익은 삶에 채찍을 주셨고, 문학은 당근으로 격려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장박을 내다봤다. 뒷바람에 은행일이 우수수 쏟아지며 늦가을날만을 노래했다. 파란하늘에 유영하는 새털구름이 쉬엄쉬엄 살라고 했다. 한참 자연놀이에 정신을 흘리다 보니 가위 눌린 듯 답답했던 가슴이



▲수상 : 전북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 등
▲현재 전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전북예총 자문위원, 영호남수필 전북 회장

▲2003년 1월, 《수필과 비평》으로 수필 등단
▲수필집 《어머니의 가슴앓이》와 5편, 교양도서 《전북의 백대명산을 가다》, 《남원의 산하》 등 10여 권



■ 작품상 윤철

어느 시인은 기척도 없이 어깨에 내려앉은 나뭇잎에서 우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안성수 평론가는

삶의 본질과 의미를 천착하는 성찰할 터

《수필 오디세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 시인의 놀라운 안목을窺어내며 문학적 감수성 훈련을 요구합니다. 나를 수필의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은 좋은 수필을 쓰려면 먼저 삶과 인격을 다듬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게으름 탓입니다. 나에게 수필은 마음 공부입니다. 늦된 마음공부가 독자의 아픔을 대신 올려주는 곡비와도

같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겸손한 속삭임 같은 좋은 수필 한 편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삶의 본질과 의미를 천착하는 성찰과 사유에 정진할 따름입니다. 이번의 새전북신문 문학상이 게으름을 단고 일어서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천해주신 문우와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상을 제정하여 수필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신 새전북신문

사에 저를 비롯한 모든 수필가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전국에서 손꼽는 문학상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글쟁이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며 이번 문학상 수상을 환호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격월간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 신인상으로 등단
▲현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
▲수필집 : 《칸트에게 보내는 편지》《당신 가족은 안녕한가요》

멈춤과 쉼의 시간 속에서도 수필에 대한 끈을 놓지 못했다

■ 작품상 모임득

한낮의 뜨락, 모과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의 껍질이 보이는 듯합니다. 나무 아래 몇 송이 핀 민들레가 너무 싱싱해 보여 눈을 맞추었습니다. 어찌자고 필 때를 한참 지난시기에 피었는지, 애처롭습니다. 늘 무엇이든 느지막이 이루어지는 내 모습

같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필과 인연은 오래되었지만 제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글쓰기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앞서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 인생은 언제 꽃이 피려나 했습니다. 어찌면 뒤늦게 핀 민들레꽃이 내 모습 같아 아리지만, 늦게 핀 꽃도 향기가 더 진할 수 있기에 희망을 품어 봅니다. 멈춤과 쉼의 시간 속에서도 수필

에 대한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수필이 있어 치유되었고 지금은 나를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새봄 움을 틔우듯, 작은 것에 눈길 주면서 세상살이 하고 싶습니다. 간결하고 참신한 주제, 문학적 형상화로 감동과 공감을 주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문학상을 계기로 멈춤과 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성찰하고 치열하게 쓰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새전북신문의 변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필과비평 수필 등단
▲수필집: 《간이역 우체통》《먹을 갈다》

전국적 응모, 수필문학의 새 지평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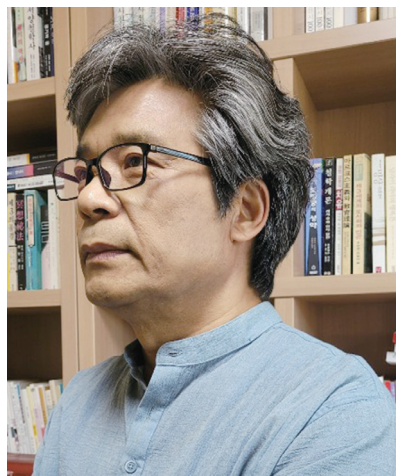
■ 종합심사평-배귀선 심사위원장

모든 예술 작품에는 사유가 집약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나름의 치열함이 내재한다. 《새전북신문》문학상에 응모한 작품 전면에서도 그러한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12명 중 결선에서 경합한 6명의 작품은 모두 수필이 요구하는 구성적 요소나 기능적 요건들을 고루 갖춘 작품들이었다. 이들 작품에는 서정은 물론 삶의 양태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개성적인 문장과 주제의 형상화도 돋보였다. 때문에 수상자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심사위원은 고심 끝에 대상에 김정길, 작품상에 모임득과 윤철을 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형적 수필의 형태에 개성적 사유를 담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

상을 받은 김정길의 기행수필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에서 얻어진 결정체라는 특징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와 환경적 차원에서 시선을 붙들었다.

김정길의 대표 작품 《울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여 보여주는 행적과 함께 희생과 봉사 정신에 빚대어 종교계의 반성을 배면하고 있으며, 《빈 동지》는 아버지의 죽음과 까치둥지가 비어 있는 형상을 비유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운 삶을 보여주듯 있는 《금강 벚꽃길》은 기행수필로써 21세기의 화두인 환경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 부각되었다. 작품상을 수상한 모임득의 《연필》은 지인으로 부터 받은 연필에 자신의 글쓰기를

대입하고 있으며, 《그대가 머문 자리》는 암 투병으로 사망한 남편 이야기가 기억의 감정선을 따라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먹을 갈다》는 “자신을 갈아 글씨를 낳는 먹처럼” 살아가는 일을 고려 시대의 단산오곡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모임득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울림을 주는 문학의 특징을 이면화하고 있다. 작품상, 윤철의 《당신, 가족은 안녕한가요》는 “가족을 위협하는 적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통찰과 함께 현대적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아버지의 자리》는 누름돌처럼 가장의 무게는 벅찬 것이지만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모순어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울림의 마실》은 차에 든 노모의 이야기로, 한 평생 자신보다 남을 위해 조건처럼 살아온 어머니가 차에 든 후애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어머니의 마실로 비유하고 있다. 끝으로 아쉬운 것은, 응모작 상당



부분이 수필의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험사실(소재)을 토대로 새로움을 발견하는 건자의 시각이라든가 묘사를 통한 표현의 아쉬움, 사유의 도출 등이 그것이다. 추후 이러한 작품들이 응모되기를 바라며,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수상에서 비껴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한 편의 시

바람의길
전길중

있는 길 따라갈 뿐이라서
오르막 내리막 가리지 않았고
가지 못한 길에도 아쉬움 없다

꽃송이가 아름다운 산비탈
형틀어진 머리칼처럼 난해하게
색이 변하고 형체도 사라진다

계절을 몇 번 안다가 사라지면 그뿐
누군가의 시에 숨겨진 울음보다
절실하게 다가와 가슴을 저렸지만
사라진 흔적을 찾아 무엇하리

꽃잎이 저도 거기 머문 햇살과
잠시라도 함께 흔들리니
그나마 행복했다고 자위하며
맨발로 찍어온 생인 것을



전길중 시인은

* 시집『안경 너머 그대 눈빛』그녀의 입에 숲이 산다』등 다수
* 시선집 『달을 품고 싶은 나무』
* 한국문인협회 감사, 한국문학신문 편집국장, 전북문학관 자문위원장

다양한 느낌의 감성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최근들어 '감성캘리그래피II'를 펴낸 서예가-캘리그래피 강수호는 다양한 느낌의 감성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편집자>



▲ 책자 출간의 의미는

요즘은 규칙적인 정통 서예에 비해 다양한 느낌으로 감성을 글씨에 표현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예의 규칙성을 벗어나 현대성에 맞게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캘리그래피 장르의 인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이같은 책자 발간이 처음인가

이에 저는 2018년에 캘리그래피 1권 이형구 선생의 시집 [결에 두고 싶은 사람의 시]구 집필 후 올 해 2021년 2집으로 [감성캘리그래피II] 작품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교재의 형식으로 초보자뿐 아니라 강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단어에서 의성어, 의태어, 순우리말, 수식 문구, 명언, 명구, 시구, 작품의 완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강약 強弱, 고저高低, 곡직曲直, 기수起收, 농담濃淡, 소밀疏密, 여백餘白, 완급緩急, 윤갈潤渴, 장단長短, 향배向背 등의 습작習作 포인트를 적용하여 다양한 느낌의 감성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캘리그래피는 어떤 예술인가

캘리그래피는 문자를 소재로 감성을 표현하는 조형예술로서 정통 서예술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각예술 분야입니다. 캘리그래피는 잘 쓴 글씨가 전부가 아니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맑고, 사납고, 역동적이고, 무서운 느낌 등 인간의 모든 감성을 끝끝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률적이고 형식에 짜인 글꼴이 아니라 단어나 문장의 격에 맞게 개개인의 작품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전의 서체를 답습, 습득하여야 많은 감성을 표현하는 글꼴을 창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지난 동안 다양한 서체와 글꼴 등, 두루 연구하고 교육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재를 출간하여 학서자들에게 올바른 지침서가 되고 서예와 캘리그래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종근 기자

■ 강수호 작가는

원광대학교미술대학 서예과 졸/동 교육대학원 서예교육전공 졸(교육학석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특선2회 입선5회 초대작가/심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종합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초대작가/운영/심사
(사) 한국미술협회/한국전각협회 이사
(사)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잇혀졌던 전북 독립운동가 '김춘배 의사'

전북향토문화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30분 전주 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완주출신 독립투사 김춘배의 사 항일투쟁 학술대회를 가졌다.

“3·1독립선언서에 참가한 33인은 최고령이 대부분 지역 3년 정도인데, 김춘배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독립운동이 모두 소중해 활약상의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홀로 치열하게 무장

활동을 한 김춘배는 아직도 의사, 열사, 지사 등 호칭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주명준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은 그동안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